



전북대 토목공학과, 전국 경진대회서 '은상' 쾌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학부생팀이 최근 열린 제28회 토목의 날을 기념해 열린 토목 구조물 모형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토목공학과 김진서, 김관우, 김재원, 박찬우, 윤찬, 유동민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부유식 항구와 2층 구조 교량을 결합한 복합 물류 인프라 모델인 '플로팅 하버(Floating Harbor)'를 제시했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들이 설계한 플로팅 하버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물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이다. 특히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적 설계 요소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토목공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우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해 토목 관련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모형 제작과 발표 경쟁을 펼쳤다.

이에 전북대팀은 자체 제작한 모형과 함께 작품의 설계 개념을 담은 영상을 제출해 예선을 통과, 토목의 날 행사 현장에서 열린 본선 발표에서 성과를 거뒀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서,전광판 활용 교령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2025년도 교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전광판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읍역사거리, 정일여중 인근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활용, '진성(가수) 교통안전 교육영상'을 송출해 타겟층의 눈을 사로잡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스스로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시청각 자료와 실제 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박상훈 서장은 "교령자 교통사고는 치명률이 높고 회복도 어려운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금구면, 경기 시흥시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경기도 시흥시 포동 운동장에서 '금구면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개최해 금구면 농특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구면 농가에서 구슬땀 흘리고 정성들여 수확한 쌀, 잡곡, 고추, 토마토, 상추와 품질 좋은 쌀로 만든 맛 좋은 금구 누룽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한데 모아 홍보함으로써 시흥시민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승곤 금구면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정성을 들бек 담아 신선하고 맛있는 금구 농산물들로 준비하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김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김제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아모아 즐거운 마을학교, 농촌 마을에 활력 제공

임실군, 삼계면 생생마을관리소 어린이 교실 운영

임실군이 삼계면 박사골 문화복지마당에서 4월부터 지역의 초등생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교실을 개강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다.

'삼계면 생생마을관리소'에서 '모아모아 즐거운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목)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유아와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책 놀이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1회를 맞은 삼계초등학교는 5,537명의 졸업생과 단일지역에서 3백여 명의 박사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지역의 명문 초등학교였지만, 2024년 1학기 삼계초는 전교생 수가 8명에 그쳐 통폐합 논의가 오고 갔을 정도로 지역 소멸 위기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농촌유학추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 2학기부터 삼계초등학교는 농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현재 학부모 9명, 초등학생 10명, 유치원생 2명, 중학생 1명 등 지역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마을 곳곳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번 생생마을관리소의 모아모아 즐거운 마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 좋은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생생마을관리소의 모아모아 즐거운 마을학교를 통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유학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가 공존하게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이후에도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 내장상동 자전거도로 터널, '안심길'로 변신

야간 LED 조명 240개 설치

정읍시 내장상동 자전거도로 터널, 로 '안심길' 변신

정읍시 내장상동 자전거도로 터널 구간이 LED 조명 설치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길로 새롭게 단장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수)는 터널 약 200m 구간에 걸쳐 240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그간 이 터널 구간은 등나무와 장미가 어우러져 낮에는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냈지만, 일몰 이후에는 주변 조명이 닿지 않아 노약자나 학생 등 취약계층이 통행 시 위험이 따랐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7월 주민총회를 통해 '자전거도로 터널 내 조명 설치 사업'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의결했고



지난 3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공을 시작해 지난 18일 모든 설치를 마무리했다.

김영수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조명 설치로 자전거도로를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조명 설치 외에도 자전거도로 정기 환경정화, 이색 벤치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민 참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진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정신복지센터,아파트 찾아가는 생명사랑 캠페인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생명사랑 캠페인을 통해 입주주민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에 나섰다.

'생명사랑 아파트 캠페인'은 지난 18일 부영1차아파트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지역 내 14개 아파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환경개선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목표로 한다.

행사는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정신건강 홍보물 배포, 현수막·배너 활용, 마음약국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더불어 정읍지역자활센터의 커피차도 현장에 배치돼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산동면,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 예방 나서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관내 주민들과 노닐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예방교육 및 진드기 기피제 지급 등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의 예방에 나섰다.

산동면은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SFTS를 포함한 다수의 매개 감염질환에 대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일가구 소통방문과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추가해 어르신들 스스로 감염의 위험성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1일, 구급대원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심리회복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형식은 구급대원들이 업무 중 겪게 되는 감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혼불문화관 일원에서 힐링 목공 체험과 산책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이번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구급대원들의 기존의 쌓여 있던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